

'간추린 팔만대장경' 부처님 가르침 '쑥쑥'

만해스님 '불교대전' 호시

청소년·어린이용포함 15종 나와

경전을 읽자. 그러나 8만장 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 앞에서 주저앉고 만다. 무슨 경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을까 막막하다. 그래도 경전을 읽어야 한다. 부처님과 만나기 때문이다.

'불교성전' '불교대전'의 이름으로 나온 책들이 경전읽기의 막막함을 덜어준다. 이들 책은 대부분 '부처님' '교리' '수행' '불자생활' 등 주제별로 단락을 나누고 여러 경전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려뽑아 어렵지 않게 진리의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려뽑은 팔만대장경'으로 불리는 이들 책 가운데 호시를 이루는 한편 이후에 간행된 각종 '불교성전(경전)' 편찬의 기본틀을 제공한 것은 <불교대

전>이다.

만해스님이 1910~1913년 사이에 통독사에 머물며 국한문 혼용체로 집필한 것으로, 1914년 빽사관으로 첫선을 보였다고 한다.

한역대장경과 남한대장경 등 444부의 경전을 인용해 불교의 기본교리와 수도방법, 처신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서품' '교리강령품' 등 9품으로 구성하고, 각 품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경·유·논에서 초록해 실었다. 79년 이원섭씨의 번역으로 이 책을 펴낸 현암사는 가로짜기로 제판 잡에 5월쯤 다시 펴낼 예정이다.

내용 및 출판책인 등 가장 성실한 편집체제를 갖춰 펴낸 것으로는 동국대 역경원의 <불

교성전>이 꼽힌다. 72년 초판 이후 지난해까지 45권을 펴내 일반인들에게도 낯익은 책이다.

'부처님의 생애' '초경경전' '대승경전' '교단의 규범' '조사어록'으로 구성했다. 대한불교진흥원에서 펴낸 <통일 불교성전>은 본연부 아함부 반야부 등 10부로 나뉜 필독경전 33경을 수록했다.

<韓英日 불교성전(화남출판사)>은 우리글과 영어 일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 책도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수도, 교단 등의 큰 단락마다 경전의 출전을 밝혔다. 아울러 불교역사와 불교성전 전래의 역사, 한국불교약사를 부록으로 실어 불교이해를 도왔다.

<청소년불교성전>(대한불교



◇ '가려뽑은 대장경'으로 불리는 책들이 경전읽기의 막막함을 덜어준다. 아울러 경전읽기는 진리를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진종원 펴냄)과 <어린이불교성전>(단이습)은 두책 모두 한 글세대가 대상인 점을 감안해 평이한 한글쓰기, 인용경전과 문헌의 해제를 실어 불교입문서로도 읽힌다. <어린이불교성전>은 삽화와 함께 동화체의 문체를 사용해 어린이들에게 친근감을 전해주고 있다.

이들 책이 어디까지나 경전인 탓에 다소 딱딱함을 주고 있다. 법정스님의 <말과 침묵>은 수필식으로 불교의 명언들을 실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자기를 찾아라' '가장

과 사회' 등의 주제 아래 짙막한 경전의 인용과 뜻풀이가 자투리없이 읽게 해준다.

이밖에도 '가려뽑은 팔만대장경'으로 불리는 책은 <대승승판만장경 불교성전>(서경보림, 명문당) <불교성전>(우리출판사, 관음, 흥보원, 명문당, 흥신문화사) <영한대역 불교대성전(호암) 아함경을 간추린 <부처님 말씀>(성원권, 법등)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책에만 의지해 경전을 읽어서는 안된다. 부처님 말씀은 당시의 상황과 듣는

이의 마음가짐등을 고려해 행한 대기설비가기 때문에 위의 책은 경전읽기의 입문 및 안내서로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 스님들과 불교학자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읽는 자세도 중요하다. 이기영 박사(한국불교연구원장)는 "피땀 흘린 수도생활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기록이 경전"이라며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진리를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으로 되풀이 읽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명사추천

분류서 100선

박정호 스님의 '석림수필'

나의 30대 끝 1960년대 후반에도 불교계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당시 불교계는 조계·태고의 재산싸움으로 영일이 없으면서 참 불자를 기르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심심하게 '이란' '사관'의 갈등도 빛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의상과 보조가 추구했던 바가 아닌가? 그리고 관해(狂慧) 치선(痴禪)의 폐해가 아니겠는가? 스님도 식민지시대 현실의 모순을 겪으면서 당시 해묵은 대립과 갈등을 몰고 겪으며 참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 고민한 모습이다.

나는 불교계에 새 바람을 일으킬 개혁의 인물을 찾아 보게 되었다. 그중의 한 분이 정호스님(鼎鎬, 1870~1948)이다. 스님은 박한영(朴漢永)이란 이름으로 널리 통했고 영호·석전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스님의 처세와 행적을 추적하면서 시봉이었던 양철우스님에게서 '석전문초'를 얻어 보게 되었다.

스님을 학승이라고 했지만 신문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스님은 이름난 강박으로 평생 불제자를 기르는 데 전심하여 개운사에 강원을 열었고 불교전문학교의 교장을 맡기도 하였다.

그는 친일 불교에 맞서 싸웠다. 그가 항일운동을 본격



이 이 화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석전문초'는 스님의 문집이었다. 앞 부분에 수록된 '석림수필(石林隨筆)'에 관심이 쏠렸다. 여기에는 21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잘못 전해지는 사실, 불자가 공부하는 중에 새겨야 할 일 그리고 수행에 밀접한 이야기를 요령있게 정리해 놓았다.

그 내용은 단순 명료했으나 그리 풍부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해박한 지식과 한문과 명문장으로 엮여져 있어서 해독하는 데에 무진에

편견벗고 원묘찾는 禪敎 강조 수행자의 자세 명료하게 밝혀

를 먹었다(번역본이 없음).

여기에서 군데군데 강조된 것은 선교(禪敎)의 문제였다. 스님은 오도(悟道)를 떠돌아대는 무리들을 향해 일갈했다. 화두를 잡고 영승을 읊어대면서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구두선이나 뇌끼리는 풍조를 개탄했다. 더욱이 권문세가에 물어 명망이나 낚으며 고승을 차치하는 시대를 한탄했다.

적으로 밟아지 않았으나 결코 봄을 더럽히지는 않았다. 스님은 불교전문학교(현 동국대)와 개운사를 걸어서 출퇴근 하였는데 그 중간에 참신과출소가 있다. 일본 순사를 앞에만 뚫을 한 무더기씩 싸놓고 가버린다.

스님은 지 백파(白坡)의 법손이었고 당시의 명사 이기(李沂)와 최남선을 친구 또는 제자로 두었다. 그러면서 늘 온화하고 겸손한 품가짐을 지녔다. 그리고 불사를 일으키고 제자를 기르는 일 이외에는 번잡한 세상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스님을 통해 참 불자의 모습을 찾아 불교개혁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석림수필'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크다 하겠다. 이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건 참 불자가 요구된다.

'홍명집' '명구론' 등 불교서 6종 포함 동·서양 고전 2백종 번역출판 추진

한길사, 1백억원 투입 CD롬도 제작

불교의 명저작들을 포함한 동서양 고전 2백종이 한길사에 의해 '그레이트북스' 시리즈로 새롭게 번역, 출판된다. 그동안 이들 책은 한글번역이 없었거나, 일·영어의 중역이어서 대부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백종 가운데 불서는 <육조단경>(명구론)<홍명집> 등 6종이며, 목록 및 역자는 다음과 같다. △육조단경(혜능):김영옥(가산불교문화연구원) △명구론(名句論):이태승(동국대강사·불교학) △금강삼매경론(원효):최유진(경남대교수·철

학) △의천문집:추만호(우리불교문화연구원) △수심경(지눌):강건기(전북대교수·철학) △홍명집(弘明集):신규탁(연세대교수·철학)

이 가운데 <홍명집>은 중국 불교전래 초기 불교와 중국 전통사상과의 충돌상황에서

배불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 승우(僧祐)가 찬술한 것으로, 국내 초역이다.

한길사는 이 시리즈를 단순한 자구(字句)풀이식 번역에 그치지 않고 고전이 독자에 널리 읽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상세한 해설과 역사주석, 사진 등 시각자료를 수록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연구·해설서로 꾸밀 계획이다.

이를 위해 6년에 걸쳐 1백억원을 투입해 양장본 문고본 CD롬으로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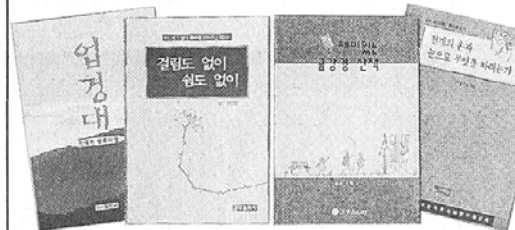
새로나온 책

▲관음경(운오연 편저)=솔바람 경전시리즈 첫책권으로 한역경전의 우리말 풀이와 해설을 곁들여 경전을 풀이했다. 경전의 자구풀이에 그치지 않고 '삼독의 재난에서 벗어나자' '일음의 공덕' 등 경전의 가르침에 주제를 붙여 법문하듯 쉽게 서술했다. (솔바람, 3천5백원)

▲천개의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석우 지음)=반야

'지옥의 실상' 등 50여편의 글을 통해 사람들이 행한 결과와 지옥과 업보로 인한 괴롭힘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5천6백원)

▲결림도 없이 섬도 없이(권영일 지음)=지은이가 틈틈이 써온 사찰법회의 법문과 수필, 신문에 발표한 글을 한데 묶었다. 특이한 불교인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불교집안의 일과 일상사의 여러문제를 벗어난 가르침에 의지해 풀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로출판사, 비매품)



정사 교리법회에서 행한 강의 원고를 중심으로 엮은 천수경·해설, 불교의 기본예절과 법·법·승 삼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불교입문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꾸렸다.

<관음, 6천5백원>

▲엄경대(지지경 지음)=현재 미국의 복기산중에서 집거하며 미래세의 종교와 인간세계에 대한 명상과 집필활동에만 전념하는 저자의 에세이집.

▲금강경 산책(우학 지음)=금강경 가운데 능정엄장본 구경무아론 등 주요부분 17분을 뽑아 본문과 용어해설 강론의 순서로 풀이했다. 각 장 끝에는 경전이해를 돕기 위해 주제이야기를 실어 경전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풍은인연, 5천6백원)

불심으로 쓴 태교일기 내달 출간

실법연구원 이혜옥씨 '사랑하는 나의 작은 우주야'

'거룩하신 부처님, 지난 세월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을 없애려 참회하고 참회하구나 아름다운 아기와 만날 수 있도록 살피주세요.'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벅속의 아기와 대화할 일기와 시 그림으로 엮은 태교일기 <사랑하는 나의 작은 우주야>가 다음달 초 도서출판 솔바람에서 나온다. 지은이는 실법연구원 편집부장 이혜옥씨.

태교 또는 육아일기는 여러 종 있었으나 당사자인 예비

마가 직접 쓴 태교일기가 책으로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의 태교일기에는 불자로서의 신심이 가득하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한호흡을 하오니/ 고운 아기의 건강한 울음소리를 주소서...'한 몸이 한 법계임을 어이 모르겠습니까.' 글의 곳곳에는 부처님의 가피력에 대한 고마움과 발원, 불자로서의 자신을 다져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역력하게 나타나 있다.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금강경 강의	무 비	불일출판사
2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경각
3	화엄경	무 비	민족사
4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 의 범	시공사
5	얼반의 빛	석 용 산	문화수첩
6	마라대빠	에반스체츠	고려원미디어
7	바보가 되거라	경 봉	효림
8	서울-전통사찰	최원식 외	사찰문화연구원
9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최원준	교보문고
10	붓다의 호흡과 명상	정 태 혁	정신세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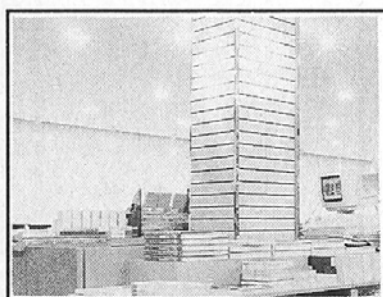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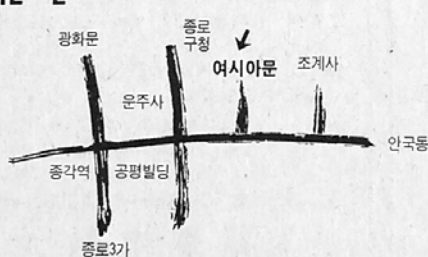
구입문의: (02)737-0695

불은가, 득·반항가, 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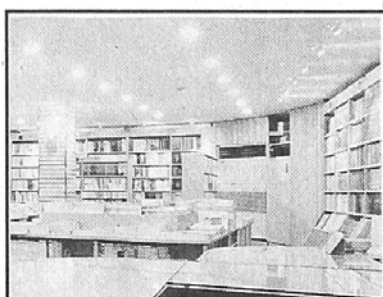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오십시오

오시는 길



- 저자와의 만남 (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회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4.1.부터 시행 예정)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